

항공우주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통상산업부
항공우주공업과 과장 이원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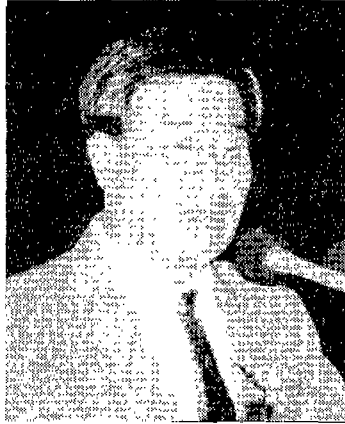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그동안 70년대 섬유산업, 80년대 조선/가전, 90년대 자동차/전자산업 등을 통해 눈부신 경제 기술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향후 21세기에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적 성장산업을 발굴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공우주산업은 국가기술력 및 경제력을 척도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전자, 기계 등의 축적된 주변산업의 발달로 체계적인 육성 지원이 빠른 시일내 선도국으로 진입 가능한 자본재산업이며, 21세기에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될 아·태지역에서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자립적 시장개척 및 현재 단일품목으로서 매년 2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항공기 시장은 항공여객수요가 향후 20년(1994~2013년)간 연평균 5.5%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어 민간여객기가 2013년 경에는 현재의 10,500대에서 20,000여대로 증가하여 신규소요 9,400대, 교체수요 4,600대로 시장규모가 총 9,8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우주시장은 이동통신용 저궤도 인공위성사업의 진척으로 2010년까지 1,500기의 인공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보여 시장규모는 위성 700억불, 발사체 900억불, 지상장비 1,250억불 등 총 2,850억불에 달할 것이다.

한편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2005년경 항공분야 약 100억불, 우주분야 20억불 등 총 120억불 수준에 이르며, 항공분야는 세계시장의 약 2%(현재 0.9%)를 점유하여 수



출이 62%로 크게 신장되어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발전하고, 우주분야는 위성 독자설계능력 및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 및 육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는 항공우주산업을 선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2000년대초 세계 10위권 이내 진출을 목표로 중형급 항공기 독자개발체계 확립 및 내수/수출기반 확립, 위성시스템의 수출산업화, 국제

대형사업의 적극적 참여 등의 육성전략을 마련중에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산업은 90년대말까지 중형항공기 등을 개발하여 항공기산업 기술자립화를 달성하고 2000년대에는 대형 여객기 국제 공동개발사업에 Major partner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10대 항공기산업국으로 진입하고, 우주산업은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을 통해 시스템기술 및 핵심기술 확보로 자체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지구 저궤도 위성사업, 차세대 무궁화 방송통신위성 개발 등을 사업 참여로 위성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산업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육성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다.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부처적 산업육성 전담체제 구축

현재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이 처해 있는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바, 각 부처의 관련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고급인력 및 시설 투자의 분산 및 중복을 방지하고, 기술·설비 및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의 구축한다.

2. 효율적인 산업구조 확립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경우에서는 기술혁신, 산업연관 등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또한 산업구조의 집중화가 요구되므로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정부의 역할 조정 및 산업구조의 집중화를 추진한다.

3. 후속전략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항공기산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거점사업을 통한 핵심기술의 확보 및 항공기산업의 기술자립화를 달성할수 있도록 장기기본계획의 전략사업으로의 추진한다.

4. 국내 품질인증제도 확립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미국 및 유럽과의 BAA 협정체결을 준비추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무부, 통산부, 교통부, 과기처 등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항공기 품질인증제도를 지원한다.

5. 항공기 소재·부품 산업 육성

항공기산업 관련 개발자금의 일정률이 소재·부품 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고 기술

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항공기 소재·부품의 품목별 국산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산·학·연 공동으로 항공기 소재·부품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소재·부품의 시험평가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재·부품 산업의 전문·계열화를 추진하고 정부 및 민간차원의 offset제도를 소재·부품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6. 지원제도의 정립

항공우주산업 육성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개발사업과 전문연구기관 및 산·학·연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투자의 추진을 위한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정립하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